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과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

박정애\*\*

1. 머리말
2. 한국전쟁과 모녀관계의 상징화
3. 왜곡된 '어머니(motherhood)'와 병에 걸린 딸
4. 어머니의 죽음과 딸의 성장
5. 맺음말

---

\* 이 논문은 2004년도 삼척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삼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국문초록
------

모녀관계와 딸의 주체 구성이 서사의 주된 줄기를 형성하는 모계 문학이라는 점에서 박경리와 박완서의 작품은 '고향 상실 시대의 부계문학'으로 범박하게 총칭할 수 있는 남성 작가의 전후소설에 대비되는 바 있다. 부계문학이 신화적 모성 혹은 모성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시장과 전장』과 『나목』은 모성적 현신과 아울러 허위와 기만, 소유욕과 광기를 포함한 모성의 실체를 소설화함으로써 모성을 탈신화화한다.

『시장과 전장』에서 어머니 윤씨는 자식의 양육자 · 보호자로서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으로밖에 자기를 재현할 수 없기에 딸을 영원히 피양육자의 자리에 묶어두려 한다. 딸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적절히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의식에 묶여 자기 인생의 주체로 성숙하지 못한다. 윤씨의 경우와 달리 『나목』에서 이경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가부장제적인 제한된 정체성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아들의 어머니'이기만 한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딸은 살아 있음에 대한 죄의식이라는 일종의 정신적 질병에 걸린다.

한국전쟁과 남성 가장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가부장제하에서 제도화된 모녀관계에 으폐되어 있던 모순을 노출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 정립을 강제하는 극적 계기가 된다. 전쟁으로 인한 수난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지영은 생명의 힘을 신뢰하게 되고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강한 모성애를 발휘한다. 그 와중에 일어난 어머니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딸의 어머니 되기의 여정을 완성시킨다. 한편 『나목』의 어머니는 현실과 삶을 부정하고 환상과 죽음 충동 속에서 목숨을 이어간다. 어머니의 모성에 시나리오 안에는 가부장과 아들의 자리만 있고 딸의 자리가 없다. 마침내 어머니가 죽자, 이경은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지만, 곧 '아들의 어머니'에 집착하는 모성애이거나 무한히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애이거나 간에 이데올로기적 허상 내지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고가(古家)의 해체를 통해 한 번 더 이루어진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경은 낡은 주체를 허물고 새로운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제의적 고통을 느낀다.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야 이경은 내면의 은밀한 통증을 기제로 글쓰기라는 도구를 통해 죽은 어머니와 청춘의 통과제의를 호출한다. 자기 안의 통증으로 존재하는 어머니의 몸이, 상징적 아버지와 남성 연인들이라는 '글쓰기 펠러스(writing phallus)'를 대체하고 작가로 하여금 글쓰기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핵심어 : 모녀관계, 주체 구성, 전쟁, 모성, 어머니, 통과제의, 성장, 아들의 어머니, 어머니 되기.

## 1. 머리말

20세기 냉전 시대의 산물인 한국전쟁은 21세기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도 불안정한 정권협정체제하에서 상시적인 전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종류의 갈등과 위기, 전쟁을 직접 경험한 한국인의 영혼에 각인된 상처와 직·간접적으로 그 상처의 기억을 상속받은 전후세대의 전쟁 노이로제는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현재 시제로 증명한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하나의 압도적인 소재이자 작가의 창작 욕망을 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해 왔다. 당연히도 한국전쟁의 경험을 소설화한 작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여성 작가의 전쟁 소재 장편소설이다. 전쟁을 직접 체험한 작가들은 흔히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비극적 경험을 발화(發話)하고 상처를 치유하려 한다.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 선우휘의 『불꽃』, 『깃발 없는 기수』,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이호철의 『무너 앓는 소리』, 최인훈의 『광장』 등이 그러한 시도의 결과물인데, 여성 작가의 경우에는 최정희의 『인간사(人間史)』, 손소희의 『남풍(南風)』, 강신재의 『임진강의 민들레』, 임옥인의 『월남전 후(越南前後)』,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박완서의 『나목(裸木)』 등이 거기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작품의 양과 질 어느 쪽으로나 우리 문학사의 거목으로 우뚝 선 대표적 여성 작가 박경리와 박완서의 장편소설, 『시장과 전장』, 『나목』을 주된 텍스트로 삼아 거기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양상을 탐구하려 한다. ‘모녀관계’는 『시장과 전장』, 『나목』이 남성 작가들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에 대하여 보이는 변별점들의 한가운

데를 관통하는 중요한 축이다. 여성이 주체성을 구성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자매애라는 여성 계보의 횡적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모녀 관계라는 종적 구조이다. 모녀관계와 딸의 주체 구성이 서사의 주된 줄기를 형성하는 모계 문학이라는 점에서 박경리와 박완서의 작품은 '고향 상실 시대의 부계문학'<sup>1)</sup>으로 범박하게 총칭할 수 있는 남성 작가의 전후소설에 대비된다. 또한 부계문학이 "전쟁에 대한 집단적 콤플렉스에서 비롯되는 증오와 죄의식을 해소하고 주체의 불구성을 포용하면서 현실의 불완전성을 보상해줄 이념적 보상물로" 신화화된 "모성의 집"<sup>2)</sup>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하여, 『시장과 전장』과 『나목』은 모성적 헌신과 아울러 허위와 기만, 소유욕과 광기를 포함한 모성의 실체를 소설화함으로써 모성을 탈신화화한다.

『시장과 전장』과 『나목』은 그동안 현대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분석되고 해석되어왔다. 1964년에 발표된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라는 시간과 한반도라는 공간을 아우르면서 여성과 남성, 시장과 전장, 생활과 이데올로기, 사랑과 이념, 삶과 죽음 등의 인식론적 대립 항을 탐색하고 있는 텍스트이기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쟁을 드러내는 방식의 관념성과 추상성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도 더러 받았으나<sup>3)</sup> 대개 박경리 소설세계의 시공간적 확대를 성공적으로 알려준 작품으로 고평된다. 가령 전쟁의 비정을 잘 묘사했다거나<sup>4)</sup> 공산당원의 분장을 한 니힐리스트라는 매우 독특한 인물을 창조했다거나<sup>5)</sup> 시대적 상황과

1) 전상국, 김윤식 대담, 「고향 상실 시대의 부계 문학」, 『신동아』(1981.8).

2)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 2000), p.45.

3) 대표적으로 백낙청의 평문, 「괴상적 기록에 그친 6·25 수난」(『신동아』, 1964.4)과 임중빈의 평문 「삶 그리고 긍정의 모험」(『문학춘추』, 1966.12)이 그러하다.

4)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성문각, 1978).

5) 정명환, 「폐쇄된 사회의 문학」, 『한국 작가와 지성』(문학과지성사, 1966).

개인의 내면을 균형 있게 성찰한 리얼리즘적 작품이라거나<sup>6)</sup> 하는 식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보다 본격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 권영민에 의해 생활인의 시각과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동시에 전쟁과 역사를 바라본 작품으로<sup>7)</sup>, 김복순에 의해 사랑과 이념이라는 두 가지 통로로써 구원을 문제시한 작품으로<sup>8)</sup>, 구재진에 의해 시장과 전장이라는 대립 공간의 각축을 통해 생활세계를 지향한 작품으로<sup>9)</sup>, 이나영에 의해 60년대 정치권력의 작동원리 속에서 박경리가 개인의식을 확립하고 현실에 응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sup>10)</sup> 해석된다.

박완서의 등단작 『나목(裸木)』은 작가의 작품세계의 원형질(原形質)이라 말할 수 있는 작품이다. 『나목』에 대해서는 체험과 문학적 기억의 고리를 살핀 김윤식<sup>11)</sup>과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작품을 다시 읽은 이태동<sup>12)</sup>의 평문이 있고, 전쟁체험 문학의 관점에서 본 이경훈<sup>13)</sup>, 홍혜미<sup>14)</sup>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선미는 『나목』이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발견된 자기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 여성의 ‘자아의 서사’라 보았고<sup>15)</sup> 소영현은 『나목』이 복수의 글쓰기이자 치유 혹

- 
- 6) 조남현, 『『시장과 전장』의 이념 검증』, 『한국의 전후문학』(태학사, 1991).
  - 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민음사, 1993).
  - 8)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한국문학연구회 편, 『『토지』와 박경리 문학』(1996).
  - 9) 구재진, 『1960년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생활’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1960년대 문학연구』(깊은샘, 1998).
  - 10) 이나영,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개인의식’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편, 『어문론총 38호』(2003.6).
  - 11) 김윤식, 『기억과 묘사』, 『김윤식선집 4』(술출판사, 1996).
  - 12) 이태동,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문학사상』(1992.3).
  - 13) 이경훈, 『작가의 전쟁 체험 문학의 핵심적 구조』, 『문학사상』(1996.3).
  - 14) 홍혜미, 『박완서 문학에 투영된 6·25 전쟁』, 전단학회 편, 『단산학지』 5호(1999.12).
  - 15)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 『나목』, 『그 가을의 사흘동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호(2001.6).

은 복원의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박완서 소설세계와 원형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sup>16)</sup> 권명아는 「한국 전쟁과 주체성의 서사 연구」에서 박완서의 전쟁 체험 소설들을 비동일화의 전형적 양상을 띠는 여성의 주체 구성 서사로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도 『나목』을 “가장으로서의 어머니”의 전형이라 할 ‘역척모성’의 표상과 함께 어머니와 딸의 관계라는 여성적 주체성 형성의 주요한 고리에 대한 탐색을 놓게”<sup>17)</sup> 하는, 박완서 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여성의 주체 구성이란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명백하게 전쟁 경험에서 형성되는 전쟁 미망인, 혹은 전쟁의 유족으로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탐구이다. 박완서 문학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어머니와 딸의 공감과 반감의 동학은 실상 ‘역척 모성’으로 상징되는 전쟁 미망인으로서 여성의 주체 형성에 대한 거리 두기의 산물이다.”<sup>18)</sup>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딸의 주체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녀관계와 그 상징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박경리와 박완서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 『시장과 전장』과 『나목』을 다시 읽으려 한다.

## 2. 한국전쟁과 모녀관계의 상징화

한국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면전의 양상을 띤 전형적인 현대전이였다. 남북한 모두 자원을 총동원하였고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확

16) 소영현, 「박완서의 『나목』론 - 치유와 복원의 소설적 글쓰기」,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편, 『1970년대 장편소설의 현장』(국학자료원, 2002).

17) 권명아, 『한국 전쟁과 주체성의 서사 연구』, 2001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15.

18) 같은 곳.

대됨으로써 세계대전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다. 전투종사자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현대전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남한만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물경 230여 만,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전재민(戰災民)의 수가 200여 만에 이르렀으며 그 와중에 수많은 전쟁고아와 과부, 상이군인이 탄생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국인들은, 각자의 사회경제적 입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기는 하되, 대개는 폐허에서 주체의 연속성을 생산하고 자기의식을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여기서 문학은 전쟁의 고통을 대리적으로 해소하고 살아남은 자의 존재를 위협하는 죽은 자(혹은 죽음)의 기억을 떼어놓으면서(기념과 매장의 이중적인 방식으로) 부정확한 존재를 정화함으로써 재생시키는 신성한 제관의 역할을 수행한다.<sup>19)</sup>

『시장과 전장』과 『나목』의 여성 화자는 둘 다 작가 자신과 매우 흡사한 캐릭터이다.<sup>20)</sup> 작가 박완서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라는 데에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는 『나목』뿐만 아니라 『시장과 전장』을 딸의 성장서사로 보는 본고의 관점은, 옥희도와 황태수, 하기훈과 이가화라는 독특하고 비중 있는 인물과 그들의 행적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대로 『나목』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은 주인공 이경뿐이며, 옥희도와 황태수는 이경의 표면적 행동과 그 이면의 심리적 추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등장한다.<sup>21)</sup> 『시장과 전장』에서의 기훈과 가화 또한 살아있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이념과 사랑이라는 두 구원의 문제에 천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에

---

19) 권명아, 앞의 글, p.203.

20) “지영은 나의 현실적 모습 그 자체인데, 꿈꾸는 여자인 가화가 그 배경에서 지영을 위로합니다.” 송호근, ‘삶에의 연민, 한의 미학’, 작가세계, 1994.가을. 『나목』의 자전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윤식, 앞의 글 참조.

21) 소영현, 앞의 글 참조.

가깝다.<sup>22)</sup> 자의식 강한 주인공 지영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동안, 기훈과 가화는 자신들이 맡은 바 상정의 책무를 다 할 뿐으로 생동감 있는 성격화 양상을 보이지 못한다. 지영이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출 때, 기훈은 지영이라는 여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니무스(animus)이고 가화는 지영이라는 냉철하고 예민한 자의식의 순수 지향적 타자(他者)라 할 수 있으며 『시장과 전장』은 지영의 자아 탐색의 서사이자 성장의 서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페미니스트 루스 이리가라이는 여성이 자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현할 수 없게 된 원인의 대부분이 상징질서 내부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왜곡된 데 있다고 생각했다.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어머니(motherhood)’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제공받지 못하며, 창조력이나 성욕과는 상관없이 양육과 보호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인물로 전락한다. 여성들은 그 전략에 대한 보상으로 자제나 극기, 희생, 지나치게 소유욕이 강한 모성을 강조하게 되고, 딸은 어머니로부터 적절하게 분리되어 개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딸은 그 자신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어두운 데지’와 같이 상징화되지 않은 모녀관계는 가부장적 서구 형이상학의 상징질서에 대한 폭발적인 위협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모녀 관계가 상징화되지 않고 여성이 자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현하지 못한다면 그 위협은 영원히 잠재적인 형태로만 남아 있을 것이다. 여성은 적절한 상징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신을 개체화할 수 없고 모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개별화되지 못한 여성에게는 기껏해야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기능이 주어질 뿐이다. 여성이 승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까닭이 바로 이와 같은 모녀의 상징화되지 않은 관계

22) 김복순, 앞의 글 참조.



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억압 또는 망각이 서양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여성속에 존재하는 어머니에 관해서, 모든 어머니 속에 존재하는 여성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부권적 질서의 기초를 훼손하고 성차의 혁명적 윤리를 가져다줄 금지된 행위라고 선언한다.<sup>23)</sup> 이런 식으로 이리가라이는, 소녀에게는 해부학상 승화의 원동력인 거세 공포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초자아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를 비판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충만한 창조력과 성욕을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제 상징 질서 내부에서 무정형의 어둠으로 밀려나고 주변화된 ‘어머니’를 여성으로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주창한다. 새로운 언어를 통해 어머니와 딸은 모성애라는 사랑의 단일체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별적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리가라이가 주창한 젓/언어(le languelait)는 모호하기도 하고 본질주의적 경도(傾倒)의 혐의가 없지 않지만, 그녀가 모녀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은 매우 실질적이고도 유용해 보인다. 이리가라이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상에서도 볼 수 있듯 종교와 신화에 깊이 뿌리내린, 모자관계로 이어지는 남성중심의 틀<sup>24)</sup>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여성 계보와 여성 나름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탈리아의 작은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친 안나가 어린 딸 마리아를 안고 있는 성상을 보았을 때의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떠올리며, 이리가라이는 모녀관계의 매력적인 이미지가 널리 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리스 신

23) Domna C. Stanton, ‘Difference On Trial’, *Poetics of Gender*, pp.159~160 참조.

24)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대다수의 역사적 기록물에서 “어머니와 딸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공주라든가 지배 계층의 딸이 혼례와 관련되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은, 「모성의 사회적·역사적 구성 - 조선 전기 가부장적 지배구조의 형성과 ‘아들의 어머니」, 『사회와 역사』, 제55집(1999), p.76. 각주 3번.

화에서 아주 드물게 모녀 관계를 형상화한 데메테르/페르세포네 신화를 여성 계보의 재현으로 보고, 가부장제가 결코 유일한 당위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신화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역설한다. 항상 모자관계로 대표되는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는 가부장제의 현실은 딸들에게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리가라이는 딸의 공간에 모녀 관계가 상징화되어 있는 그림이나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권한다. 언뜻 사소하게 보이는 이러한 대안의 실천은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고 모녀관계를 주체적으로 회복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긍정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sup>25)</sup>

한국전쟁은 남성 가장의 죽음 혹은 실종을 초래함으로써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전면으로 부상시킨다. 그리고 가부장제하에서 제도화된 모녀관계에 은폐되어 있던 모순을 노출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 정립을 강제하는 극적 계기가 된다. 딸은 전쟁과 전장이라는 고통스런 통과제의의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한다.

본고는 여성작가의 전쟁 소재 장편소설인 『시장과 전장』과 『나목』에서 딸이 주체의 재구성을 위해 자신의 모녀관계를 서사화하면서 어머니와의 분리와 결합을 수행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여성작가의 이러한 서사화 작업을 통해, 가부장제 상징질서 안에서 무정형의 어둠으로 남아 있던 모녀관계는 그 왜곡된 현실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일차적 상징화 단계를 밟는다. 거기서 상징화된 모녀관계의 현실적 양상이 두 입술(Two Lips)<sup>26)</sup>의 단계로까지 발전하여 모성과 여성적 창조력의

25) 모녀관계에 관한 루스 이리가라이의 논의는 다음 저서를 참고했음,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민음사, 2000), pp.194~196. 펄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pp.216~219.

26) 이리가라이의 글에서 여성 성욕을 상징하는 개념인 '두 입술(Two Lips)'은 남근만을 강조하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열려 있고 물처럼 흐르며 풍부하고

관계가 규명된다면 이리가라이가 말한 대로 '문화의 또 하나의 통사', '또 하나의 문법'을 발견하는 일<sup>27)</sup>일지 모르겠다.

### 3. 왜곡된 '어머니(motherhood)'와 병에 걸린 딸

“딸은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어머니'라는 용어에 부과된 제한적인 의미 속에서 이는 총체적인 상실을 의미한다. 그녀에게는 양육의 정체성 이외에 다른 어떤 정체성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sup>28)</sup>

『시장과 전장』에서 어머니 윤씨는 딸 지영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바친 홀어머니이다. 윤씨에게는 딸의 보호자·양육자로서의 '어머니'라는 기능적 정체성 이외에는 다른 정체성이 없다. 창조력과 성욕을 가진 여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재현할 수 없는 그녀는 결혼한 딸과 함께 살면서도 딸을 영원히 피양육자의 자리에 묶어두려 함으로써 딸의 성숙을 방해한다.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보다 좋은 사람이며 오직 저 혼자를 위해 사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생활은 어머니의 철저한 경제관념으로 단단해졌고 어느 모로나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에 제가 차지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당신하고 저하고 극장에 한 밖에 간 일이 없었다는 사실과 꽃병 하나 저의 손으로 사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을 잃어버린 불행한

---

다양한 성질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자기애(self-affection)적이며, 분리와 결합을 동시에 나타내는 복수형인 두 입술의 관계는 어머니와 딸,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27) Domna C. Stanton, loc. cit.

28) 펄 모리스, 앞의 책, p.217.

여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이 지극히 건실한 생활태도라 보았고 또한 저에게 강요했습니다. 손수건 한 장도 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그것은 한 가정의 주부로서는 물론 성숙한 한 사람으로서 자격을 잃은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강행하고 저의 위치를 되찾을 권리는 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그마한 즐거움의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생활방식으로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애초부터 갖지 않으니까도 못했습니다. 한 번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골에 집을 지어드리고 충분한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으니, 시골에 가 계시면 잘 해드리겠다고. 말을 꾸며서 한 것도 괴로웠지만 불효하다는 자의식 때문에 저는 얼굴을 붉히고 죄인처럼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생활비고 집이고 무슨 소용이고, 자식에게 쫓겨난 년이. 내사 길거리에 거꾸러 죽든 자식 있다 소리 안 할란다. 남편 덕 못 본 년이 자식 덕을 바래? 에미 쫓아내고 니 신세가 미끈하겠다”

하며 웃보파리를 싸시는 거예요. 그 말들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무서운 무기에 놀리어 어머니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경제관념이 굳은 어머니는 당신도 아시다시피 식모도 두지 않았습니다. 생활의 재미를 모르고 어머니 식으로 꾸며진 집 속에서 저는 식모 구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효자식이 되었고 그 불효자식이라는 의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너저 집에 와서 구박 받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sup>29)</sup>

인용문은 어머니, 남편과 두 아이를 서울 집에 두고 38선 접경의 연안역교로 교편을 잡기 위해 떠난 지영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지영은 이 편지에서 스스로의 연안행이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서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의 탈출이었음을 고백한다.

윤씨는 딸의 성숙과 독립을 가로막기 위한 ‘무서운 무기’로 자신의

29) 박경리, 『시장과 전장』(나남출판, 1999), pp.156~7. 다음 인용문부터는 쪽수만 명기하겠음.

평생에 걸친 희생과 헌신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윤씨는 언제나 ‘너거 집에 와서 구박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집은 지영의 집이 아니었다. 지영은 그 집에서 어디까지나 손수건 한 장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미성숙한 인간으로서 어머니의 양육과 보호 아래에 있어야 했다. 지영이 연안행 이전에 탈출과 독립을 감행할 수 없었던 것은 지영 스스로 어머니의 눈물겨운 희생에 걸맞은 보답을 하지 못한 ‘불효자식이라는 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가라이가 통찰한 바대로, ‘양육자’라는 제한된 기능으로 전락(轉落)한 모성은 그 전락에 대한 보상심리로 극기와 희생과 자식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발현하게 되고, 그러한 자기희생적 모성에 대하여 죄 의식을 가진 딸은 어머니로부터 적절하게 분리되어 개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된 딸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객지에서 홀로 자신과 대면하려 한다. 어머니는 그런 딸에게 못내 섭섭함을 표하지만, 딸은 가족을 벗어나자마자 마음속에서 가족을 지운다. “어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물결에 산산이 부서져버린 듯 허무하게. 아이들도 남편의 얼굴도 눈앞에 그려낼 수 없다. 그들의 목소리마저 생각해낼 수 없다. 오늘 아침에 헤어져 왔는데 흐린 기억의 창문에 비친 먼 옛날의 친척들 얼굴처럼.”(p.45)

(만일 내가 이복으로 납치되어 영영 가버린다면?)

지영은 그런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어떤 기대 비슷한 것을 갖는다. 가족들과 아주 헤어져버린다는 무서운 욕망 때문에.

(바이칼호... 바이칼 호수...)

지영은 러시아의 호수 이름을 중얼거려본다. 소설에서 본 호수의 환상 그리고 다시.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지영은 시장에 들른다.

시장은 축제(祝祭) 같이 찬란한 빛이 출렁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기쁜 음악이 되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 동화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페르시아의 시장 - 그곳이 아니라도 어느 나라, 어느 곳, 어느 때, 시장이면 그런 음악은 다 있다. 그 즐거운 리듬과 감미로운 멜로디가. 그곳에서는 모두 웃는다. 더러는 싸움이 벌어지지만 장을 거두어버리면 붉은 불빛이 내려앉은 목로주점에서 화해 술을 마시느라고 떠들썩, 술상을 두들기며 흥겨워하고, 대천치 원수가 되어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오다가다 만난 정이 도리어 두터워지는 뜨내기 장사치들.

물감 장수 옆에 책을 펴놓고 창호지에 담배를 마는 사주쟁이 노인도 서편에 해가 남아 있는 동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온갖 인생, 넘쳐 흐르는, 변함없이 생활이 이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

지영은 이곳이 좋고, 혼자 거니는 외로움이 좋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좋았다. 시장의 음악과 시장의 얼굴들은 어린 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향한 곳도 없는 그리움과 어린 날의 아픔이 바람처럼 지영의 가슴을 친다.(pp.131~2)

가족들과 영영 헤어져 버리고 싶은 무서운 욕망을 품고 바이칼 호수와 사하라 사막을 그리는 지영의 심상(心象)은, 유치환의 시 ‘생명의 서(序)’를 떠올리게 한다.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서 홀로 가혹한 자기수련을 감당하며 실존과 대면하려 하는 생명주의적 대결의식을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지영은 바이칼 호수나 사하라 사막 같은 초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세속적이고 속악한 공간인 시장에서 원초적 생명력과 삶의 기쁨을 발견한다. 시장은 이데올로기의 세계인 전장과 대립하며 생활의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인 바, 이곳은 기실 역사적으로 ‘아버지 부재’의 가정을 책임진 이 땅의 어머니들이 척박한 삶을 꾸려온 바로 그 공간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환상과 현실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는 하나 지영이 ‘시장’에서 자아 본연의 생명력을

발견한다는 사실은 전쟁 발발 이후 지영이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어머니가 되는 변화의 연결고리가 된다.

한편 『나목』에서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제한적 정체성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기혼여성이 아내 혹은 딸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어머니’로 자기를 인식하고자 고집하는 데에는, ‘아들의 어머니’일 때에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어지는 가부장제의 역사성이 존재한다.<sup>30)</sup>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아들들이 건재한 이상 ‘아들의 어머니’로서 여성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혁이 오빠가 어머니 뺨에 자기 뺨을 뺐다.

‘에이 징그럽다. 다 큰 녀석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고운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기름을 바르지 않아 약간 잔머리가 일어서 보이나 그래도 자연의 윤기를 지닌 검은 머리가 곱게 빗겨져 있고, 윤곽이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치아도 여전했다.

나는 어머니가 너무도 좋았다. 그러나 내가 하고픈 이야길 오빠들이 다 해버리고 어리광까지도 피워 보였으니 나는 다시 되풀이하기도 쑥스러워가만히 있었다. 좀 쓸쓸했다. 늘 아버지는 내 차지였고 어머니는 오빠들 차지였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 나는 어머니를 오빠들로부터 나누어 갖고 싶었으나 오빠들은 그런 내 눈치에 너무 무심했다.<sup>31)</sup>

이경은 모성애라는 사랑의 단일체 안에서 어머니와의 결합을 갈망

---

30) 조선 전기 가부장제의 강화는 여성을 ‘아들의 어머니’로 규범화시키고 제도화 시킴으로써 가능했다. “즉 재가녀 금고, 서얼 차대, 상제에서의 삼부팔모론, 여성의 재산 상속권 위축, 동종양자제의 도입 등 여성의 지위 하락과 가부장제 강화의 모든 과정은 모성의 등급화 및 신분화와 연관되어 있다. 신분제와 어머니의 등급화,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와 ‘딸의 어머니’의 차등화는 서로 묶여 가부장적 지배구조를 강화한다.” 조은, 앞의 글, p.95.

31) 박완서, 『나목』(민음사, 1997), pp.237~8. 다음 인용문부터는 쪽수만 명기하겠음.

하나, 오로지 ‘아들의 어머니’이기만 한 어머니와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그녀의 심정을 몰라준다. 이 평화로운 중산층 가정의 모녀관계가 내포한 허위성은, 아들이 죽고 모녀만 남았을 때에야 날것으로 드러난다. 전쟁 중 폭격으로 두 오빠가 한꺼번에 죽는 비극적 계기를 통해 이경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무섭고도 아프게 깨닫는다. 어머니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모자관계뿐이었고, 어머니와 이경 사이에 사랑으로 결합된 모녀관계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시장과 전장』에서의 지영과 달리 이경은 어머니와의 분리를 시도하기도 전에 어머니로부터 모성에 자체를 부인당하게 된 것이다.

「엄마, 나예요, 경아」

나는 벽찬 찬성을 질렀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의 눈에 부연 안개가 걷히고 어떤 감정이 담겼다. 나는 내 시선을 조금이라도 어머니로부터 비끼면 모처럼 돌아온 어머니의 영혼이 다시 훌쩍 떠나버릴 것 같아 열심히 어머니의 눈에 맞추었다.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계슴츠레 감기며 나에게 잡혔던 손까지 슬그머니 빼내고 부스스 돌아눕더니 휴 하고 긴 한숨을 쉬고는,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

...(중략)...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면 살아 있다는 것이 송구스러워 절로 몸이 오그라들고 고작 어머니로부터 피한다는 게 은행나무 밑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은행나무 밑에서 하루하루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있었다.

어머니를, 지금의 내가 비참한 것만큼의 다만 얼마라도 비참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너까지 어떻게 돼봐라. 너의 어머니 신세가 뭐가 되나> 큰어머니가 분



명 그랬겠다. 어머니를 남들이 불쌍하게 여기도록 해줘야지. 자식이라고는 없는, 딸도 없는 불쌍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pp.253~256)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아들의 어머니’이기만 한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딸은 ‘살아 있다는 것이 송구스러운’ 일종의 정신적 질병에 걸린다. 살아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은 오빠들의 죽음에 대한 끈질긴 죄책감인데, 이 역시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되 어머니로부터 존재 자체를 부인당한 딸의 공포와 절망이 만들어낸 감정에 다름 아니다. 즉 딸의 병을 유발한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도 아니고 오빠들의 죽음도 아닌 것이다. 전쟁과 오빠들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모녀관계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자신을 인식하는 어머니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했을 뿐이다. 왜곡된 ‘어머니(motherhood)’가 딸로 하여금 자기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아 있음을 힘겨워하는 병, “지독한 반쪽의 슬픔과 허기증”(p.181)에 걸리게 한 것이다.

어머니의 의치(義齒)와 의치를 끼우지 않는 어머니는, 오빠들이 죽은 후의 이경과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오빠들이 살아 있을 때는 언제나 의치를 하고 있어 젊어 보이고 고와 보였던 어머니는 오빠들이 죽고 나자 다시 의치를 끼우지 않는다.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굳건할 때에는 고명딸 내지 양념딸을 귀여워할 여유가 있었으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 않는 상태, 완전한 허(虛)”(p.181)일 따름으로 딸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어머니를 향한 이경의 반감은, 어머니를 “자식이라고는 없는, 딸도 없는 불쌍한 여인”(p.256)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남다른 동정을 받는 양공주 다이아나를 꼴사나워하고 시비를

거는 위악적 행위로도 나타난다.

#### 4. 어머니의 죽음과 딸의 성장

다수 남성작가의 전쟁체험소설에서는 모성의 신화가 “‘모성’ 자체를 이념적 가치로 상징하는 서사 구성뿐 아니라, 무구한 모성에 이르지 못한 더럽혀진 여인들(주로 창녀와 그 연장선인 훼손된 누이)의 수난 사라는 서사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구성”되고, “이러한 모성의 신화는 상실된 민족, 훼손된 민족이라는 서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sup>32)</sup> 그러나 박완서와 박경리의 전쟁체험소설은 왜곡된 모녀관계를 축으로 모성을 탈신화화하면서 딸의 성장과 어머니 되기의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전쟁은 무지막지한 파괴와 폭력으로 여성의 수난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틀에 갇혀 있던 여성에게 자아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에서 전장은 여성이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통과 시련을 무릅쓰고 통과해야 하는 ‘세의적 공간’이 된다.

전쟁이 발발하고 험겨운 귀갓길에 오르고서야 지영은 가족의 얼굴을 똑똑히 떠올리며 생전 처음으로 눈물까지 흘린다. 이제 가족은 지영에게 자기 존재와 밀접히 연결된 “새롭고 정답고 소중한기만”(p.186)한 관계로 재인식된다. 기차에 깔려 죽거나 이복에 납치되는 상상을 하고 바이칼 호수와 사하라 사막에의 기투(企投)를 갈망하던 지영의 죽음 충동은 전쟁이 초래한 갖가지 고통 앞에서 뿌리 없고 거추장스러운 고민으로 격하된다. 지영은 가족관계 안에서 자신의 주체적 입지를

32) 권명아, 앞의 글, p.41.

찾으며, “뱀혀도 뱀혀도 뺏어가는 잡초”(p.439), “근질기고, 징그럽고, 지혜롭고, 민감하고, 무서운 여자”(p.440)로서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생명과 자존에 대한 거대한 위협 앞에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단순해진 지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생명을 꼭 잡고 인생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무도 오지 말라! 이 땅에, 아무도 오지 말라! 이 땅에! 내혼자 내 자식들하고 얼음을 깨어 한강의 봉어나 잡아먹고 살란다. 북극의 백곰처럼 자식들 데리고 살란다!

아무도 오지 말라! 아무도! 영원히 영원히 이밤이 가지 말구…….)  
(pp.429~430)

위 인용문은 1·4 후퇴 때 피난을 못 간 지영이 야밤에 혼자 얼음바닥에 엎드려 내뱉는 독백이다. 남편의 행방은 묘연하고 폭격과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극한상황에서 지영의 '삶에의 의지'가 북극의 백곰과도 같은 모성애로 분출되고 그토록 분리되고 싶어 했던 어머니에게로의 결합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삶에의 의지'란 결국 목숨과 사랑을 준(give life/love) 어머니 여성(maternal woman)의 발견<sup>33)</sup>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수난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지영은 어머니와 혼연일체가 되어 어린 자식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모성애적 행위에 완전히 몰입한다. 그러던 중, 인민군이 버리고 간 쌀을 구하기 위해 한강 모래밭으로 나갔던 윤씨가 국군의 총탄에 맞아 죽는다. 어머니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딸의 어머니 되기의 여정을 완성시킨다. 어머니는 딸에게 어머

---

33) Domna C. Stanton, 'Difference On Trial', *Poetics of Gender*, ed. by Nancy K. Miller, Columbia University Press, p.168. 타자에게 목숨/사랑을 주는 이 본질적 능력은 임신한 육체라는 메타포를 통해 구체화된다.

니를 주었고, 딸은 어머니를 받아들여 스스로 어머니가 된 것이다.

『나목』에서 이경의 어머니는 현실과 삶을 부정하고 환상과 죽음 층동 속에서 목숨을 이어간다. 이경은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간호할 때에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고 오빠들 뒤편까지 효도하며 살 자신의 미래에의 꿈을 누릴 수 있다. 이경에게 깨어 있는 어머니는 공포의 대상이다. 어머니가 헛소리처럼 웅얼거리는 말 속에는 다만 “가끔 여보라든가 옥아, 혁아라든가 하는 낱말”(p.287)이 있을 따름이다. 꿈속에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그녀가 아주 즐겁던 날의 표정을 닮아가고 있었다.”(p.287)

어머니의 모성에 시나리오 안에는 가부장과 아들의 자리만 있고 딸의 자리가 없다. 그런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이경은 어머니가 회복되어 다시금 아들 없는 현실을 저주하고 살아남은 딸의 존재를 부인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마침내 어머니가 죽자, 이경은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문상객들을 울리고 자신도 호곡(號哭)한다.

「저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이란 말예요. 그때 있잖아요? 제가 아주머니 댁에서 자고 온 날 어머니는 밤새, 저 골목 밖에서 떨면서 저를 기다리셨대요. 노인네가 그 추운 밤에 그래서 그만 급성 폐렴이 돼서 그만 그만……」(p.293)

“어머니는 기어이 오빠들 곁으로 가버렸구나”(p.291)라고 생각했을 뿐 특별히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진심 어린 눈물도 흘리지 못하던 이경은, 인용문과 같이 헌신적인 모성의 시나리오를 발화하고 나서야 서러운 울음을 울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경은 스스로도 속아 넘어간 거짓 시나리오에서 금세 벗어난다. 그러나 문상객들은 모두 모성에 관한 이경의 거짓말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여기서 작품은 ‘자식에

게 무한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널리 알려진 모성애의 시나리오가 “새빨간 거짓말”(p.294)임을, “슬프고도 좀 아름다운, 그러나 어리석은 꿈”(p.294)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경은, 헌신적인 모성애의 시나리오를 꾸며내고 그 꾸며낸 거짓말에 빠져든 자신을 향해 “생전의 어머니에게 품은 혐오감”(p.294)과도 비슷한 혐오감을 느낀다. ‘아들의 어머니’에 집착하는 모성애이거나 무한히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애이거나 간에 이데올로기적 허상 내지는 거짓말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똑같이 혐오스럽다는 의미이다. 이경은 아들의 어머니이기만 했던 “어머니를 기피하고 미워한 만큼” 헌신적 모성애에 대한 자신의 꿈을 “기피하고 혐오할 것 같았다.”(p.294)

이경은 어머니처럼 현실과 삶을 부정하고 꿈속에서 살다 죽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옥희도에게 자신의 존재가 그랬던 것처럼 신기루나 수증기 같은, 타인의 꿈으로 존재하기도 싫기에 자신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소망을 품은”(p.307) 황태수가 고맙게 생각된다. “다시는 꿈을 꾸기도, 남의 꿈이 되기도”(p.308) 싫은 이경이 황태수를 선택하는 행위는, 현실과 삶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집착하던 고가(古家)의 해체를 통해 어머니의 죽음은 상징의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진다. 고가의 해체를 지켜보면서, 다시 말해 어머니의 상징적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경은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견딘다. 낡은 주체를 허물고 새로운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제의적 고통이다. 그러나 남편의 아내로 자식의 어머니로 살아온 세월이 웬만큼 흘렀음에도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는 이경의 “은밀한 곳”(p.314)에 여전히 남아 통증을 유발한다. 이 통증이야말로 죽은 어머니가 딸에게 말 걸고, 어머니가 된 딸이 죽은 어머니를 호출하는 하나의 형식일 것이다. 박완서로 하여금 끊임없이 전쟁 경험을 서사화하도록 충동하는 기제 또한 이 은밀한 곳

의 통증일 것이다.

## 5. 맺음말

모녀관계와 딸의 주체 구성이 서사의 주된 줄기를 형성하는 모계 문학이라는 점에서 박경리와 박완서의 작품은 ‘고향 상실 시대의 부계문학’으로 범박하게 총칭할 수 있는 남성 작가의 전후소설에 대비되는 바 있다. 부계문학이 신화적 모성 혹은 모성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시장과 전장』과 『나목』은 모성적 헌신과 아울러 허위와 기만, 소유욕과 광기를 포함한 모성의 실체를 소설화함으로써 모성을 탈신화화한다.

『시장과 전장』에서 어머니 윤씨는 자식의 양육자·보호자로서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으로밖에 자기를 재현할 수 없기에 딸을 영원히 피양육자의 자리에 묶어두려 한다. 딸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적절히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의식에 묶여 자기 인생의 주체로 성숙하지 못한다. 윤씨의 경우와 달리 『나목』에서 이경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가부장제적인 제한된 정체성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아들의 어머니’이기만 한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딸은 살아 있음에 대한 죄의식이라는 일종의 정신적 질병에 걸린다.

한국전쟁과 남성 가장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가부장제하에서 제도화된 모녀관계에 은폐되어 있던 모순을 노출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 정립을 강제하는 극적 계기가 된다. 전쟁으로 인한 수난상황이 심각해 질수록 지영은 생명의 힘을 신뢰하게 되고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강한 모성애를 발휘한다. 그 와중에 일어난 어머니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딸의 어머니 되기의 여정을 완성시킨다. 한편 『나목』의 어머니는 현실과

삶을 부정하고 환상과 죽음 충동 속에서 목숨을 이어간다. 어머니의 모성에 시나리오 안에는 가부장과 아들의 자리만 있고 딸의 자리가 없다. 마침내 어머니가 죽자, 이경은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지만, 곧 ‘아들의 어머니’에 집착하는 모성 애이거나 무한히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애이거나 간에 이데올로기적 허상 내지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고가(古家)의 해체를 통해 한 번 더 이루어진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경은 낡은 주체를 허물고 새로운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제의적 고통을 느낀다.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야 이경은 내면의 은밀한 통증을 기제로 글쓰기라는 도구를 통해 죽은 어머니와 청춘의 통과제의를 호출한다. 자기 안의 통증으로 존재하는 어머니의 몸이, 상징적 아버지와 남성 연인들이라는 ‘글쓰기 펠러스(writing phallus)’를 대체하고 작가로 하여금 글쓰기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시장과 전장』과 『나목』 이외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 전반이 가지는 특질과 면모를 밝혀내는 일은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경리, 『시장과 전장』(나남출판, 1999), pp.1~549.

박완서, 『나목』(민음사, 1997), pp.1~315.

### 2. 논문

권명아, 『한국 전쟁과 주체성의 서사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pp.40~203.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한국문학연구회 편,

- 『『토지』와 박경리 문학』(1996), pp.388~440.
- 소영현, 「박완서의 『나목』론 - 치유와 복원의 소설적, 글쓰기」,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편, 『1970년대 장편소설의 현장』(국학자료원, 2002), pp.49~62.
- 이경호·권명아 편, 『박완서 문학 길찾기』(세계사, 2001), pp.300~314.
- 이나영,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개인의식’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편, 『어문론총 38호』(2003.6), pp.217~254.
-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 『나목』, 『그 가을의 사흘동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호(2001.6), pp.188~220.
- 조남현, 「『시장과 전장』의 이념 검증」, 『한국의 전후문학』(태학사, 1991).
- 조 은, 「모성의 사회적·역사적 구성 - 조선 전기 가부장적 지배구조의 형성과 ‘아들의 어머니」, 『사회와 역사』, 제55집(1999), pp.76~95.
- 홍혜미, 「박완서 문학에 투영된 6·25 전쟁」, 전단학회 편, 『단산학지』 5호(1999.12), pp.347~370.
- Caws, Mary Ann, ‘The Conception of Engendering, The Erotics of Editing’, ed. by Nancy K. Miller, *The Poetics of Gen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p.42~62.
- Stanton, Domna C. ‘Difference On Trial’, *Poetics of Gender*, ed. by Nancy K. Miller, Columbia University Press, pp.159~168.

### 3. 단행본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 2000), p.45.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돌베개, 2000), pp.1~375.
- 이입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한국전쟁과 젠더』(서해문집, 2004), pp.1~344.
-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민음사, 2000), pp.194~196.
-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강희원 역(문예출판사, 1997), pp.216~219.
- Irigaray, Luce,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by Catherine Porter,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p.205~222.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nd 'Growth of Daughter' in *Fair and Battlefield* of Park Gyeong-Lee and *Bared Trees* of Park Wan-Seo**

Park, Jeong-Ae

From the point of a matrilineal literature in which a principal stem of narration is mother and daughter relationship and formation of subjectivity of daughter, the warfare novels of Park Gyeong-Lee and Park Wan-Seo can be contrasted with the postwar novels of male authors able to be named generically as a patrilineal literature of hometown-loss time. While patrilineal literature tends to pursue mythical motherhood or motherly utopia, *Fair and Battlefield* of Park Gyeong-Lee and *Bared Trees* of Park Wan-Seo demythologize motherhood by concreting the motherhood which includes an insanity, untruth, deception and desire to possess as well as motherly devotion.

The mother, Ms. Yun in *Fair and Battlefield* with only identity as mother as the fostering protector of children wants to fasten the daughter to the fostered place eternally. The daughter can not mature herself as a subject of her own life because of sense of guilt caused from not requiting appropriately the sacrifice and devotion of the mother. Differently, the mother of heroine Lee Gyeong in *Bared Trees* is restricted to the patriarchal identity as 'mother of son'. Mother who are only 'mother of son' cause the daughter to a kind of spiritual disease which is a sense of guilt about her being.

Korean war and the loss of patriarch exposes the contradiction of mother-

daughter relationship and becomes a dramatic occasion which forces the relationship to reform. The more the suffering caused by warfare is serious, the stronger Jiyeong, heroine of *Fair and Battlefield*, trust the force of life and display strong motherhood to her young children. The death of her mother in the while paradoxically completes daughter's journey of becoming mother. Meanwhile, the mother in *Bared Trees* negates her actuality and lives in the impulse of thanatos. Inside motherhood-child scenario of the mother, there is only a place for patriarch and son, not a place for daughter. After the mother dies, Lee Gyeong calls dead mother and les rites de passage of youth through covert pain of mind by the means of writing. consequently, the body of the mother who exists in her daughter's inner pain gets the woman writer to write, substituting the symbolic father and her male lovers (writing phallus).

**key words** : mother-daughter relationship, formation of subjectivity, warfare, motherhood, les rites de passage, growth, mother of son, becoming mother.

■ 위 논문은 3월 30일 투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